

목차

독서의 위안

- 머리말
-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
- 정승열靜勝熱
- 플라톤 / 아리스토텔레스
- 데카르트 / 스피노자
- 칸트
- 쇼펜하우어 / 니체
- 공자
- 목자
- 노자
- 맹자
- 순자
- 독서의 효용성

에세이

- 진리에 대해서
- 죽음에 대해서
- 돈에 대해서
- 에로티시즘에 대해서
- 문화에 대해서
- 이순신에 대해서



공자가 주나라에서 노자를 만나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말했다

공자

孔子

공자는 유가^{儒家}의 창시자이면서, 동시에 선비 계급의 창시자였다. 공자는 예^禮와 악^樂을 문화^{文化}라고 생각했다. 여기서 ‘예’란 인간관계에서의 예절^{禮節}과 도의^{道義}를 말하는 것이고, ‘악’이란 소크라테스 시대의 헬라스에서 시가^{詩歌}에 해당하는 것으로, 요즘으로 말하면 문예^{文藝}를 뜻하는 것이다.

목자^{墨子}는 실천을 강조했다. 그러나 행위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이다. 공자는 목자와는 달리 태도를 중시해서 ‘예’를 강조했다, 성품을 중시해서 ‘악’을 강조했다. “예는 인간의 외면^{外面}을 다스려 주고, 악은 인간의 내면^{內面}을 다스려 준다. 따라서 예로써 행실을 바로잡고, 악으로써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”는 것이 유가의 근본 사상이었다.

공자는 학문을 좋아했고(好學), 옛것을 존중했으며(崇古),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했다(愛人).

… <독서의 위안> 본문 중에서

에스24
인문베스트
Top 100
30주 선정



지은이 송호성 판형 152×225 값 14,000원

화인북스 Tel.032-819-2747